



**포커스**

## 1. EU-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[2.17~18]

- 아프리카 인프라투자, 그린딜 및 원자재 협력 구체화

### □ 정상회의 주요 내용

- (개요) 양측은 中 일대일로 사업 대응을 위한 EU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'글로벌 게이트웨이'에 초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
- 이 외 다자주의, 기존 파트너십 강화, 평화 및 안보 문제도 논의

**<참고> 글로벌 게이트웨이(21.12.1 발표)>**

- 공급망 강화, 교역촉진,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'27년까지 약 3,000억 유로 규모의 EU-역외국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
- 민주주의, 법치주의 등 EU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하에 △디지털, △기후-에너지, △보건, △운송, △교육·연구 분야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투자 환경조성 통한 민간투자 촉진, 저개발국의 부채위험 예방·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위한 재정조건 제안 등 中 일대일로와 차별화를 둠

- (글로벌 게이트웨이) 아프리카 내 △그린 및 디지털 전환, △보건, △운송 인프라, △지속가능 성장·고용, △교육 여건 개선
- (예산) 총 1,500억 유로(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체예산의 절반 규모)

분야	세부내용(30년 목표)
그린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지속가능 에너지) 재생에너지, 그린수소, 에너지믹스 생산역량을 향상시키고 산업개편 등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</li> <li>* 30년까지 최소 300GW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 증대</li> <li>· (기후변화) 아프리카 국가별 기후변화 정책 추진 및 재난위기 대응체계 구축</li> <li>· (식품) 아프리카 농어업 산업 지원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생태계 조성</li> </ul>
디지털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섬유 케이블, 클라우드,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접근성 확대,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, 그린 데이터 센터 신설 등</li> </ul>
운송 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프리카 주요 지역을 잇는 총 11개의 전략 네트워크 구축(Strategic Corridors)</li> </ul>
보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료물자의 자체 생산 등 공급망 다각화를 통한 보건 안보 강화</li> </ul>

분야	세부내용(30년 목표)
	· 자체 생산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 및 제조·유통 역량 강화, 말라리아·에이즈 등 질병 퇴치 연구개발 심화, 긴급 의료 대응체계 구축
성장 및 고용	· 기술·재정지원 통한 아프리카 기업지원, 광물원자재의 지역생산 통한 경제발전 촉진, 첨단기술 지원 등
교육	· 질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EU 교환학생 프로그램(Erasmus+) 참여 확대

- (다자주의) UN 등 국제규범 기반의 다자주의를 촉진하며 불평등 해소, 국제협력, 기후변화대응, WTO 개혁, 교역 확대 등을 협력
- (파트너십 강화) 코로나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회복 위해 특별한 출권(SDR)\* 통한 유동성 지원, 백신공급\*\* 및 혁신기술 공유 등
  - \* Special Drawing Rights : IMF가 도입한 위기준비자산으로, 경제위기 시 담보없이 인출 가능한 권리
  - \*\* 최소 4.5억개 백신도즈 공급('22년 상반기까지) 및 4.3억 유로 규모 백신접종 지원 등
- (기타) 아프리카 내 인권, 방위 및 안보 강화, 난민문제 개선 협력 등

#### □ EU, 기후변화대응 위해 아프리카를 적극 활용

- 아프리카를 그린딜 달성을 위한 최우선 파트너로 인식중이며, 동 지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 통해 '전략적 자주성'\*을 강화

##### <EU 전략적 자주성(Strategic Autonomy)>

- 현 EU 정부('19~'24년) 통상정책의 키워드로, 유럽 기본가치인 개방·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을 확보해 역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

- 아프리카 내 원자재·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며, 특히 그린수소 생산역량을 높여 EU 역내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
  - \* 집행위는 '30년 역내 수소 수요의 50%가 그린수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, 아프리카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

##### <(참고) 독일,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>

- 솔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 후, 대아프리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에 커다란 환영 의사를 보이며 EU-아프리카 지역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
- 특히, 수소 분야에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. 향후 독일 수요의 40~60%를 수입 수소로 충족해야 한다는 정부 전망이 나온 가운데, '21.11월에는 나이지리아 내 '수소사무소(German-Nigerian Hydrogen Office)'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 분야 협력에 나섬

\* 자료 : EU 집행위, Euractiv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

## 2. EU, 에너지 가격 상승 · 지정학적 갈등에도 재생에너지 확대

### □ EU의회, 재생 · 해양에너지 확대 시급 ... 관련법규 실질적 대응 강조

- EU의회, 재생에너지지침(RED II) 개정안\* 중간보고서에서 관료 주의적 형식 버리고 실현가능한 목표수립·적극이행 제안

\* EU집행위는 그린딜·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'21.7월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 제안, 개정안은 EU의회·이사회 검토를 거쳐 '22년 말 채택예정

- EU집행위의 '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%달성 목표는 동의하지만 소극적 수단, 기업에 부과되는 관리부담 등 언급

구분	제안내용
단일시장강화	· 각 회원국은 청정에너지 및 송전 인프라와 관련된 국경간 프로젝트 최소 2개 이상 지정
행정절차간소화	· 풍력발전 허가절차 간소화하고 전력망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익 프로젝트 지정 검토
청정수소 및 재생가능 전력 수입확대	· '30년까지 EU는 전체 그린수소 수요의 1/3만 자체 생산가능할 전망. 따라서 그린수소재생가능전력에 대한 대규모 수입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원국들에게 수입목표를 제시하도록 제안 · 수소생산은 특정지역이나 산업시설에 국한하지 않되, 전력구매계약(PPA), 원산지보증도입 등 유연한 조달프로세스 제공
개정안 및 목표조정	· '30년까지 산업용 그린수소 50%달성목표 하향조정 필요 · 운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3%→20% 상향조정 · 산업제품에 대한 '그린'라벨 요구사항 삭제 · 목재나 산림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하위법규 마련 계획 폐기제안 등

- 해당 보고서는 유럽의회 산업·에너지연구위원회(ITRE)검토(3.3일) 후 하반기 본회의에서 최종승인 예정

- EU의회, 해양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위한 '즉각적' 노력 촉구

- EU의회는 해양재생에너지전략(Offshore Renewable Energy Strategy) 검토안(2.16일)에서 승인절차간소화, 허가기간제한 도입 등 제안

- 재생전력뿐만 아니라 청정수소생산을 위한 해양재생에너지의 중요성 강조, '22년 중순 행정절차 간소화 가이드라인 발표예정

## □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스마트그리드(Smart Grid) 필요성 · 관심 대두

- (프랑스) 실시간으로 전력생산과 수요균형을 맞추는 스마트그리드 개발노력
  - 각기 다른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가변성, 전압제어 등 기술적 어려움 존재
  - '17~'22년 프랑스 포함 7개 산업관계자들 참여, 재생에너지전력망 기술개발 연구프로젝트 EU-SysFlex(EU Horizon 2020선정)진행
- (독일) 재생에너지 비중 80%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망 확대·유연성 개선 필요
  - 독일 풍력발전설비는 발트해 인근 북부에, 산업소비자는 대부분 남부위치, '30년까지 550억 유로 추가투자를 통해 12,000km규모의 송전인프라 구축예정 → 건설지연\* 및 환경단체 반대 직면
    - \* 전체 전력망 중 1,800km 가동시작, 700km건설 중, 나머지는 계획단계에 있음
  - '30년까지 전기차 1,500만대가 보급된다면, 전기소비패턴도 달라짐에 따라 전력네트워크·가정용 저장장치 수요 급증예상

\* 자료원 : EU의회(2.16)·Euractiv(2.18)

## 뉴스 단신

## □ (ESG) 공급망 실사법, 대기업 · 일부 고위험 중소기업에 적용기로

- EU 공급망 실사법 공개(2.23/수)에 앞서 언론에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, 전체 유럽기업의 1%인 1만3천개 기업에 적용
  - 직원 수 500명이상, 전 세계 순매출 1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 대상
  - 섬유 · 광업 · 농업 등 고위험 산업부문의 매출이 50% 이상일 경우, 고용 250명 이상, 순매출액 4천만유로 이상 기업에도 적용
- 집행위, 한국 등 역외국 기업 4,000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정
  - 고용 · 매출액 기준과 함께 EU기업과의 '사업관계(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)\*'가 주요 판단기준

\* 집행위는 사업관계가 지속적이고, 밸류체인상 비중이 경미하지 않을 경우라고 정의

- 한편, NGO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기업의 민사책임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반영
  - EU기업이 행동강령(code of conduct)을 준수했다는 계약상의 보장을 사업 파트너로부터 확보했다면 민사책임에서 면책

\* 자료원: Euractiv(2.22)

## □ (통상) EU, 역내기업 특허권 보호 위해 WTO에 중국 제소(2.18)

- 집행위, 중국 기업들의 유럽 첨단기술 특허권 불법 사용을 막고 중국법원의 '소송금지 가처분 명령(Anti-suit injunctions)' 대응위해 WTO 제소
- 중국법원은 '20.8월부터 동 명령을 통해 자국 통신 및 첨단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막아옴
  - 즉, 화웨이 등 유럽 특허기술을 불법 사용한 中 기업에 대해 EU 기업이 중국 이외의 재판소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,
    - 일일 13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장가 대비 저렴한 특허권 사용료에 합의하도록 압박해 EU 기업들의 피해가 큰 상황
- 이번 WTO 제소에 따라, 양측은 60일간 양자협의를 거치게 되며 합의도출에 실패하는 경우 WTO 분쟁패널 절차가 개시
- 한편, EU는 중국-리투아니아 통상분쟁\* 관련 WTO에 중국을 제소(1.27) 하는 등 올해 들어 두 번째 제소절차를 진행

\* 중국, 대만 외교공관을 개설('21.11월)한 리투아니아에 대한 반발로 리투아니아산 제품 및 해당국 부품이 포함된 유럽산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시행('21.12월~)

\* 자료원 : EU 집행위

## □ (그린딜) 유럽통행료지침 개정안 최종 확정,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

### <유럽통행료 지침 개정>

- 유럽통행료지침(Eurovignette directive): EU역내 통행료 부과 규칙으로, 통행료제도 시행은 회원국 선택이지만, 도입시 유럽통행료 지침을 따라야 함 ('01년 발효)
- 유럽의회는 기후대응 위해 기존 유럽통행료지침의 개정을 제안('17) → 이사회 이견으로 논의 지연 → 이사회 입장 채택 ('21)→ 의회승인, 5년만에 최종확정 ('22)

- 유럽의회, 개정안 승인으로 유럽통행료지침 최종확정(217)
  - 주요 도로 화물차 통행료를 기간제에서 실제 주행거리 기준으로 전환,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\*
    - \* CO2 배출량 및 자동차의 환경 성능에 따라 화물·운송차의 통행료 차등 부과하고 전기, 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인센티브 부여
  - 단, 회원국별 일부구간 및 승용차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
- 정당별, 산업별 해당 지침에 대한 평가 엇갈려
  - 개정안을 주도한 중도(Renew), 중도좌파그룹(S&D)은 해당 지침을 시작으로 유럽 교통 시스템 표준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기대
  - ↔ 중도우파그룹(EPP)과 녹색당그룹은 회원국별 예외조항 허용으로 국가별 상이한 시스템 운용과 녹색전환 취지 훼손 우려
  - 유럽자동차공업협회(ACEA) 및 트럭제조업체 친환경 화물차 시장도입 기대
  - ↔ 국제도로운송연맹(IRU)은 운송 서비스 비용 인상 경고
    - \* 자료원: 유럽의회, Euractiv (2.18)

## □ [에너지] 집행위, EU 에너지안 장기화 전망에 대응 조치 마련 중

- 집행위, 에너지안 종합대책의 초안 유출 (3월 발표예정)
  - '23년까지 높은 에너지가격\*, 불확실성 지속 및 인플레이션 심화 전망
    - \* 현재, 전년대비 도매가격 가스 400%, 전기 260%인상. 소매가격은 가스 51%, 전기 30% 인상
  - 집행위, 에너지안 장기화 대응위해 다양한 조치\* 마련 중
    - \* △가스 비축량 확보, △LNG 수입선 다변화, △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허가기간 단축. △러시아 가스프롬사 경쟁법 위반여부 조사 등
- \* 자료원: Euractiv(2.18)

## □ [법치주의] 유럽사법재판소, 폴란드·헝가리 EU 기금 삭감 합법 판결

- 재판부, 법치주의 조건부규정(Rule of law conditionality regulation)에 대한 폴란드와 헝가리의 이의제기 기각. 동 국가에 대한 EU기금 삭감 합법 판단(2.16)

- 유럽의회는 'EU가치 보호'하는 법원 판결에 환영하며 집행위에 이행 촉구
- 해당 규정 발효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집행위는 구체적 절차 마련 중
- 한편, 유럽의회는 법치상황 조사 위해 폴란드에 대표단 파견 (2.21)
- 대표단은 폴란드 대통령, 총리, 법무장관에 면담 요청 및 법조계, 언론,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예정

\* 자료원 : 유럽의회(2.16), EU집행위, Eureporter(2.21)

## CBAM 모니터링

### ① 업계 동향

- 언론 : EURACTIV
- 게재일자 : '22.2.15
- 주요내용 : 유럽 철강업계 입장 관련 보도자료
- 유럽철강협회(Eurofer), 집행위 법안대로 CBAM이 '26년부터 시행되는 경우 CBAM 실효성이 나타나기까지 2~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동 기간동안에는 ETS 무상할당제를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
- 탄소배출이 큰 유럽 철강산업은 그동안 ETS 무상할당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, 무상할당의 폐지로 역외국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 중

\* 유럽 철강협회, CBAM 및 무상할당 폐지에 따른 업계 손실규모 '30년 140억 유로 전망

- 그린딜 등 EU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현재 탄소가격이 톤당 98 유로로 최고치를 기록중인 상황에서, 자국 탄소비용이 높지 않은 역외기업 대비 불리하다는 입장

○ 링크 :

<https://www.euractiv.com/section/energy-environment/news/eu-in-balancing-act-over-carbon-border-levy-industry-concerns/>

-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인한 핵심원자재 수요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역내 리튬 탐사·채굴사업에 대한 관심증대
-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, 리튬 매장지대 발견·탐사진행 중
  -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적정 채산성이 확인된다면, 핵심 원자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내\* 리튬 채굴 필요성 강조(2.17일)
  - \* 현재 프랑스 내 리튬공급은 佛광산기업 Eramet 소유의 아르헨티나광산 매장량에 대부분 의존
- 포르투갈 석유기업 Galp Energia·스웨덴 배터리제조사 Northvolt 합작, 유럽 최대 리튬 정제소 건설 계약 체결(21.12월)
  - 포르투갈 북동부 지역에서 채굴한 리튬(英 Savannah Resource社)이용, '26년까지 연간 70만대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 정제 가능할 전망
- 영국·호주 본사 둔 다국적 광산기업 Rito Tinto, 세르비아 리튬 채굴 사업에 24억 달러 투자결정(21.7월)
  - 세르비아 서부 자다르 지역에서 산화리튬 1.8% 함유한 광석 1억 1,800만 톤이 확인되었으나, 시민·환경단체 반대시위로 보류 중

<'21년기준, 전 세계 리튬 매장량>

국가명	매장량(톤)	점유율(%)
칠레	9,200,000	43.8
호주	4,700,000	22.4
아르헨티나	1,900,000	9.0
중국	1,500,000	7.1
미국	750,000	3.6
캐나다	530,000	2.5
짐바브웨	220,000	1.0
브라질	95,000	0.5
포르투갈	60,000	0.3
기타	2,100,000	10.0
<b>합 계</b>	<b>21,000,000</b>	<b>100</b>

(자료: USGS)

\* 자료원 : Euractiv(2.18)

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

KOTRA EU 주간 브리핑 구독 신청, 자료 문의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.  
(카카오톡 채널) 카카오톡 친구 검색 'KOTRA 브뤼셀무역관' 및 채널추가  
(이메일) 브뤼셀 무역관 권지연 과장 ([jiyeonkwon@kotra.or.kr](mailto:jiyeonkwon@kotra.or.kr))

